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산불피해 현장 방문
NH농협금융은 지난 4일 김광수 회장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직접 피해상황을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김광수 회장(왼쪽 세번째)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 두번째)와 농협금융의 산불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NH농협금융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9기 입교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5일 경기 안산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제9기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수도권 및 충청지역 9기 입교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우수 졸업기업 선배기업가인 이종수 그린리소스 대표의 도전, 실패, 성공 스토리 발표도 진행됐다. /중진공



삼표시멘트, 운송선 '삼표3호' 명명식
삼표시멘트는 부산 감천항 21번 선석에서 시멘트 운송선인 '삼표3호' 명명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명명식에는 문종구 삼표시멘트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전 기원제에 이어 선박 명명장 수여, 선박 견학 등 순서로 진행됐다. /삼표시멘트

롯데홈쇼핑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 모델 발탁

롯데홈쇼핑은 KBS '전국노래자랑' 스타로 떠오른 화제의 인물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를 모델로 발탁해 제작한 유료회원제 서비스 '엘클럽(L.C.LUB)' 홍보 영상을 지난 4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병수 할아버지'는 지난달 24일 KBS '전국노래자랑' 서울 종로구편에 출연해 가수 손담비의 댄스곡 '미쳤어'를 춤과 함께 열창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BS "전국노래자랑" 스타로 떠오른 화제의 인물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 /롯데홈쇼핑



홈플러스-한국P&G, 유소년 풋살 페스티벌 개최
홈플러스와 한국P&G는 어린이들의 꿈과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2019 플레이컵 유소년 풋살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풋살 페스티벌은 6월 8일까지 두 달간 홈플러스 일산점을 시작으로 부산가야점, 동대문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등 5개 점포 H.M 풋살파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유소년 축구클럽 120개 팀, 총 1200여 명의 선수가 대거 참가한다. /홈플러스

생계 막막한 예술가들



홍경안의
시시일각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 (2017년 기준) 결과는 참담했다. 기존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처음 실시한 2015년과 비교해 나아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예술인의 고용상황은 악화되었으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떨어졌다. 분야별 표준계약서 도입에 따른 계약체결 경험 상승과 부당계약체결 경험 등이 소폭 낮아졌고, 예술인 개인의 노력이 크지만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 기회가 조금씩 넓어지는 추세를 제외하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가장 심각한 건 예술인 수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이 1년간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평균 수입은 1281만 원에 불과했다. 2015년 평균 수입은 1255만 원이었다. 3년간 고작 26만원 늘어난 꼴이다. 물가상승률과 실제 사용 재료비를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문제는 이 가운데 월 100만원 미만의 비중이 무려 72.7%에 달한다는 점이다. 5백만원 미만이라고 밝힌 예술가도 27.4%에 이르렀다. 특히 예술가 중 약 29%는 수입이 전혀 없었다. 이는 예술인의 절대다수는 생계의 고통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창작의 산실인 개인 창작공간 보유율도 줄었다. 전체 응답자의 49.5%가 창작공간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는 지난 2015년 결과(54.3%)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그나마 창작공간을 보유한 예술가도 '자기' 형태보다 '월세' 형태가 많았다. 자기는 37.3%인 반면 '월세'는 44.5%로 나타났는데, 2015년 34.6% 대비 7.2% 증가했다.

예술인 '경력 단절' 현황도 좋지 못했다. 입문 이후 1년 이상 예술 활동을 포기한 상태인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는 23.9%로, 2015년 15.9% 보다 훨씬 늘었다. 이들이 예술 활동을 포기하게 된 이유로는 예상대로 '예술 활동 수입 부족' (68.2%)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는 질병, 출산·육아 순이었다.

이처럼 예술인들의 삶의 질과 창작 환경은 3년 전과 비교해 건강해지지 못했다. 예술가 10명 중 6명은 수입이 아예 없거나 월 50만원도 되지 않는 벌이로 1년을 살고 있으니 문화예술강국 건설은 고사하고, 생활고로 배를 굶다 죽어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홀한 건 아니다.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술인생활자금융자' 등의 제도를 준비 중이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비롯해, 창작대가 기준안 마련, 전속작가제도 시행 등, 예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이었다. 사회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로(로)' 사업 역시 년차를 더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고민한 시간에 비례해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장을 위한 다양한 예술직무영역 개발이라는 긍정적 성과도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즉, 신개념 미술장터 운운하지만 시장 질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작가들을 장사꾼으로 만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미술장터'와 같은 무지한 정책은 폐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통한 창작지원금 확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저가 예술인 임대 공간 확충 등의 현실적인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재외한국문화원 등을 거점으로 한 해외진출교두보 제공을 포함해, 코리아아티스트 프로젝트와 동일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장치 유지, 한국 예술 글로벌 마케팅 팀 신설, 추급권 도입, 각 지역 재단이나 문화회관 등과의 조율을 통한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기획 등도 궁극적으로 예술인 실태의 향후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술평론가

유한김벌리, '올바른 미세먼지 대응교육' 확대

**취약계층 대상 교육 기부활동
교육횟수·시니어층으로 확대**

유한김벌리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미세먼지 대응 방법을 알리는 '미세먼지 걱정 아웃 교실' 교육 기부 활동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걱정 아웃 교실'은 유한김벌리가 2016년부터 어린이와 시니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미세먼지 대응 수칙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 방법을 담은 교육과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유한김벌리는 지난해 8개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걱정 아



유한김벌리 교육 담당자가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초청해 '미세먼지 걱정 아웃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웃 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 걱정 아웃 교실' 교육 횟수를 8회에서 14회로 늘리고, 수혜대상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관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시니어층으로 넓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환경강사가 신

청 기관에 방문해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경보 시 대응 방법 ▲올바른 황사 마스크 착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인사

◆연합뉴스 △정보사업국장 김성용 △편집국 경제에디터 임상수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주중국 고희규 △콘텐츠평가실 콘텐츠평가위원 이명조 △OANA(아태뉴스통신사기구) 사무국장 내정 이동민 △편집국 전국·사회에디터 안수훈 △인전취재본부장 권영석 △대전·충남취재본부장 정찬욱 △정치부장 노효동 △IT의료 과학부장 이주영 △국제뉴스1부장 황재훈 △경기북부취재본부장 김인철 △대구·경북취재본부 취재본부장 류성무 △전북취재본부 취재본부장 홍인철 △관리부장 박정석 △영문뉴스부장 심신아 △영문경제뉴스부장 박상수 △영문북한뉴스부장 장재순 △편집국 그래픽 뉴스팀장 반종민 △총무부 행정팀장 양수웅 △

재무회계부 영업관리팀장 김정태

부음

▲ 박윤권씨 별세, 박영신(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전문기자)·석신(은혜종합공사대표)·신호(세무법인 한림 대표)·은자·경자·은숙씨 부친상. 김화천·유재국·권병욱씨 장인상 = 7일 오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10시, 02-6986-4440.
▲ 오세원씨 별세, 유병학(자영업)·유병길(자영업)·유병림·유병문(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 수석부장)씨 모친상, 김옥생·조미영(새지음교회 목사)씨 시모상, 김행구(전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씨 장모상 = 7일 오전 1시30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장례식장 202호

실,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043-743-4499 (대표전화).

▲ 김봉한(김봉한 내과 원장)씨 별세, 김성훈·수범·건수·현정·수연(첨단병원 신경과)·내수씨 부친상, 이봉규(이 내과 원장), 임동훈(조선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최태순(서울조달청)씨 장인상 = 7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발인 9일 오전. 062-220-3352.
▲ 김태연씨 별세, 도역수씨 부인상, 도현석·현숙씨 모친상, 유진태(영남일보 체육부장)씨 장모상 = 6일, 대구의료원 국화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053-560-9552.
▲ 기세철씨 별세, 정보석(배우·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씨 장인상 = 7일 오전 서울대대 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9일 오전 10시. 02-2072-2010.